초등

수능 독해

문학 1 | 육이오 전쟁부터 현대까지

가이드북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자소전 _ 이문구	○	○			○
02 장마 _ 윤흥길		○	○		○
03 자전거 도둑 _ 박완서	○	○			○
04 가난한 사랑 노래 _ 신경림	○	○	○		
05 괜찮아 _ 장영희	○				
별별 사건					
01 소음 공해 _ 오정희	○				
02 일용할 양식 _ 양귀자	○				○
03 노새 두 마리 _ 최일남	○				○
04 낙화 _ 이형기	○	○	○		○
05 구두 _ 계용묵	○	○			○
별별 배경					
01 수난이대 _ 하근찬	○	○			○
02 광장 _ 최인훈		○	○	○	
03 꺼삐딴 리 _ 전광용		○		○	○
04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	○			○
05 추억에서 _ 박재삼		○	○	○	○
별별 소재					
01 흐르는 북 _ 최일남		○	○	○	
0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흥길		○	○		○
03 성탄제 _ 김종길	○	○		○	○
04 풀 _ 김수영	○	○			○
05 결혼 _ 이강백		○		○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사랑손님과 어머니 _ 주요섭	○	○			
02 삼대 _ 염상섭		○	○	○	○
03 쉽게 씌어진 시 _ 윤동주		○			○
04 나룻배와 행인 _ 한용운	○	○	○		
05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_ 오영진		○	○		
별별 사건					
01 미스터 방 _ 채만식	○	○		○	
02 운수 좋은 날 _ 현진건	○	○			○
03 봄·봄 _ 김유정	○	○		○	○
04 유리창 1 _ 정지용	○	○			○
05 고향 _ 백석	○	○	○		○
별별 배경					
01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	○	○		○
02 만세전 _ 염상섭	○	○		○	○
03 태평천하 _ 채만식		○	○		
04 님의 침묵 _ 한용운		○	○		○
05 청포도 _ 이육사	○	○			○
별별 소재					
01 동백꽃 _ 김유정	○	○	○		
02 돌다리 _ 이태준	○	○	○		○
03 역마 _ 김동리		○		○	○
04 진달래꽃 _ 김소월	○	○	○		○
05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_ 김영랑	○	○			

작품 이름	중등 교과서	고등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원 모의 평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별별 인물					
01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	○	○	○
02 심청전 _ 작자 미상	○	○	○	○	○
03 허생전 _ 박지원	○	○			○
04 동명왕 신화 _ 작자 미상	○	○			
05 (가) 동짓달 기나긴 _ 황진이	○	○			○
(나) 묏버들 가려 _ 홍랑	○	○	○		
별별 사건					
01 사씨남정기 _ 김만중	○	○	○	○	○
02 운영전 _ 작자 미상	○	○	○	○	○
03 흥보가 _ 작자 미상	○	○	○	○	○
04 춘향전 _ 작자 미상	○	○	○	○	○
05 가시리 _ 작자 미상	○	○	○	○	○
별별 배경					
01 박씨전 _ 작자 미상	○	○	○	○	○
02 홍길동전 _ 허균	○	○	○	○	○
03 양반전 _ 박지원	○	○	○		○
04 (가) 하여가 _ 이방원	○	○			
(나) 단심가 _ 정몽주	○	○			
05 봉산 탈춤(제6과장 양반춤) _ 작자 미상	○	○	○		○
별별 소재					
01 토끼전 _ 작자 미상	○	○	○	○	○
02 만복사저포기 _ 김시습		○	○		○
03 오우가 _ 윤선도	○	○	○		○
04 (가) 두꺼비 파리를 _ 작자 미상	○	○		○	○
(나) 개를 여남은이나 _ 작자 미상	○	○			
05 규중 칠우 쟁론기 _ 작자 미상	○	○			○

별별 인물

01 **유자소전** _ 이문구

02 **장마** _ 윤흥길

03 **자전거 도둑** _ 박완서

04 **가난한 사랑 노래** _ 신경림

05 **괜찮아** _ 장영희

별별 인물 어휘로 마무리

01 유자소전

이문구

#장면별 핵심 태그

#1
후미진 [# 대폿집]에서 만나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유자

#2
[# 비단잉어]가 죽자 유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총수와 이를 의뭉스럽게 받아치는 유자

#3
유자가 죽은 비단잉어를 처리한 방식을 듣고 잔인무도하다고 말하는 [# 총수]

#4
총수가 [# 위선자]로 보이자 총수의 운전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유자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8~13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운전사 2 비단잉어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는 유자의 친구이며, 총수의 운전사는 유자이다.
사건 유자는 총수의 비단잉어가 죽자 비싼 비단잉어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매운탕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였다.
배경 유자는 민물고기를 파는 술집인 대폿집으로 '나'를 불러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소재 유자가 총수의 죽은 비단잉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일로 유자와 총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다.

02 ⑤
유자가 비단잉어한테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수입 물고기라서가 아니라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다.

03 ③
비단잉어가 왜 죽었느냐는 총수의 물음에 그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일부러 의뭉스럽게 대답하는 유자의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총수가 상식 밖의 비싼 몸값을 주고 비단잉어를 사들인 것에 대해 유자가 반감을 가진 것에서 유자가 허영과 위선에 대해 비판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③
값비싼 비단잉어를 사다 연못에 풀어 놓은 총수의 모습에서 부를 과시한다는 것을, 고상한 척하지만 비단잉어가 죽자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총수의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5 ④
이 글에서는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유자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빼내지 않고 비단잉어를 연못에 넣어서 비단잉어가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06 ⑤
유자는 총수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자, 그런 줄도 모르고 총수를 모셔 온 나날들이 욕스러웠고, 그런 총수에게 매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차스러워서 총수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

07 ⑤
㉤은 '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다투어 봤자'라는 의미이다.

08 ④
보기는 유자의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와 이 글의 제목 '유자소전'을 참고할 때, 이 글이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傳)'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장마

윤흥길

#장면별 핵심 태그

#1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죽은 삼촌으로 여기고 달래지만 꼼짝도 않는 [# 구렁이]

#2
[# 할머니]의 머리카락(흰머리)을 태우자 움직이는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

#3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한 후 죽고, 지루한 [# 장마]도 끝이 남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4~19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구렁이 2 외할머니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구렁이를 달래어 배웅한 사람은 외할머니이다.
사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한 일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하는 계기가 된다.
배경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한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소재 외할머니가 태운 것은 '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할머니의 머리카락이다.

02 ① 집안에 들어온 구렁이는 감나무에 몸을 친친 감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 집안 식구들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

03 ⑤ 보기와 이 글을 참고할 때, 외할머니가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어 삼촌의 영혼을 편안히 저승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할머니의 머리카락(흰머리) 움찍도 않던 구렁이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몸을 움직여 집을 떠난다. 이로 보아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구렁이(삼촌)의 원한을 푸는 매개물이면서,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상징한다.

05 ⑤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선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전함으로써,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행동을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① 전쟁에 나간 사람은 '나'의 삼촌과 외삼촌이다. ② 할머니는 죽기 직전 '나'를 용서한다. ③ 장마가 끝나고 죽은 사람은 할머니이다. ④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고 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06 ③ 쓰러졌던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듣고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며 두 사람은 화해한다. 할머니의 구완을 맡은 사람은 '나'의 고모이다.

07 ③ 이 글의 결말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화해와 용서가 나타나 있으며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 간에 새로운 갈등이 벌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③ 이 글은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대접하여 보내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무속 신앙과 가족애와 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로 육이오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자전거 도둑

박완서

#장면별 핵심 태그

#1
수남이의 [#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생긴 자동차 흠집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신사

#2
자전거를 훔쳐 도망친 일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 똥빛]임을 깨닫는 수남

#3
낮에 [# 도둑질]을 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일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수남

#4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인 [#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한 수남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20~25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차 2 자전거 3 아버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수남이는 자전거를 들고 자신이 일하는 주인 영감의 가게로 도망쳐 온다.
사건 밖에 세워 둔 수남이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나게 된 것이다.
배경 수남이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왔다.
소재 수남이는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을 깨닫고선 속이 메스껍다고 하였다.

02 ⑤
흠집을 찾고서는 환호하고 덩칫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는 것에서 경박한 인물임을, 어린 수남이에게 수리비로 큰돈을 요구하는 것에서 매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3 ⑤
수남이는 신사에게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빌어 보지만, 신사는 오히려 수남이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다. 수남이는 빌어도 소용없자 결국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기에 이른다.

04 ②
신사가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에 수남이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다.

05 ③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종의 도둑질을 한 수남이를 칭찬하는 말이므로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이 드러난다. 주인 영감은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고 수남이를 혹사시키는 인물이다.

06 ②
수남이는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라고 하며,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다.

07 ⑤
수남이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 즉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로 보아 아버지는 주인 영감과 달리 수남이의 잘못을 꾸짖어 줄 분이다.

08 누런 똥빛
수남이의 얼굴이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는 것에서 수남이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수남이가 양심과 도덕성을 되찾았음을 알 수 있다.

09 ③
작가는 수남이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을 되찾는 수남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림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4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장면별 핵심 태그

#1
가난한 노동자인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 두려움]

#2
보고 싶은 어머님과 고향에 대한 [# 그리움]

#3
[# 가난] 때문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을 모두 버려야 하는 화자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26~2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난한 젊은이이다.
시어 이 시의 화자는 '가난'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표현 이 시는 연의 구분은 없지만 행 구분은 되어 있다. 이 시는 1연 18행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02 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가난으로 인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등의 인간적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03 ⑤
'가난하다고 해서 ~ 겠는가'라는 시구를 1, 4, 8, 12, 16행에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ㄷ). 또한 '-겠는가'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버려야 하는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ㄹ).

04 ③
'까치밥'은 바로 다음 시행에 나오는 '새빨간 감'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5 ②
선명한 색채 대비가 나타나는 시행은 3행으로 '눈 쌓인 골목길'의 하얀색과 '새파랗게 달빛이'의 파란색이 대비되고 있다.

06 ②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에는 '뜨겁다'라는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②에도 '찬바람'에 '차갑다'라는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①은 미각과 후각의 복합적 이미지, ③은 청각적 이미지, ④는 후각적 이미지, ⑤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07 ②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이 시의 화자가 산업화된 도시에서 고된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노동자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②와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④
이 시는 가난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화자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아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화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모두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괜찮아

장영희

#장면별 핵심 태그

#1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한 '나'를 배려해 준 [# 어머니]와 골목 안 친구들

#2
'[#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3
'나'에게 [# 희망]을 주는 말이 된 '괜찮아.'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30~33쪽까지 정답이야!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의 어머니는 '나'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사건 '나'가 초등학교 1학년 쯤, 집 앞 골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깨엿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깨엿 두 개를 주고 간다.
배경 '나'는 어머니가 대문 앞 계단에 깔아 준 작은 방석 위에 앉아, 골목길에서 노는 친구들과 놀았다. 놀이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친구들이 '나'에게 따로 역할을 주기도 하였다.
소재 '나'는 어린 시절 깨엿 장수에게서 들었던 '괜찮아.'라는 말, 방송에 나온 가수의 말, 운동 경기에 패배한 선수들에게 관중들이 외치는 말, 퀴즈 대회에서 탈락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해 주는 말처럼 '괜찮아.'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해진다고 하였다.

02 ①

#2의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를 통해 '나'가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어야 하는 아이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가 집에서 어머니와 노는 것을 좋아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나'는 골목길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구경했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집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할 수 없다. ⑤ '나'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였다.

03 ⑤

골목 안 친구들은 놀이를 할 때 '나'에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고 했다. 이처럼 친구들이 '나'에게 역할을 준 것은 '나'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나'를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①

글쓴이는 '괜찮아.'라는 말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용서, 격려, 나눔, 부축, 희망의 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①은 이러한 의미들과는 거리가 멀다.

05 ①

할아버지가 꽃병을 깨뜨린 손자에게 한 '괜찮아.'라는 말은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이라고 볼 수 있다.

06 ③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휘로 마무리

메인북 34~36쪽까지 정답이야!

01 ①

제시된 문장과 ①의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한다. 나머지의 '눈'은 모두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한다.

02 ②

'옹색하다'는 '생각이 막혀서 답답하고 옹졸하다.'라는 뜻이다.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라는 뜻이다.

03
(1) 임종
(2) 연민
(3) 생채기
(4) 회심

(1) '임종'에는 '죽음을 맞이함.'이라는 뜻과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이라는 뜻이 있어서, '임종을 지키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2) '연민'은 '동정심'과 유사한 뜻의 어휘이다.
(3) '생채기'는 '상처'와 유사한 뜻의 어휘이다.
(4) '회심'은 주로 '회심의' 꼴로 쓰여, '회심의 미소', '회심의 한 방'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04 ㉡

'탄성'은 '몹시 감탄하는 소리.'를 뜻하는 말이다. '한숨'은 '근심이나 설움이 있을 때, 또는 긴장하였다가 안도하였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을, '탄식'은 '한탄하여 한숨을 쉼. 또는 그 한숨.'을, '괴성'은 '괴상한 소리.'를 뜻한다.

05
(1) 네댓
(2) 비늘

(1) '네댓'은 '넷이나 다섯쯤 되는 수.'를 가리키는 말로, '네다섯'과 같은 말이다.
(2) '비늘'은 '물고기나 뱀 등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을 가리킨다. 「유자소전」의 유자는 맞춤법에 어긋난 말이나 비속어를 자주 쓰는데, 이는 작품의 효과를 위한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06
(1) ㉢
(2) ㉡

(1) '단박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를 이르는 말.'이므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의 '즉시'나, '쉬지 아니하고 곧장.'이라는 뜻의 '단숨에'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한꺼번에'는 '몰아서 한 차례에. 또는 죄다 동시에.'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뜻하므로,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을 뜻하는 '임무'나 '일을 맡는 역할이나 부서.'를 뜻하는 '파트'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배역'은 '배우에게 역할을 나누어 맡기는 일. 또는 그 역할.'을 뜻하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07 ㉡

두 할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으므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 '동병상련'이 가장 적절하다.
㉠ '선견지명'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나타낸다. ㉢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08 ㉠

수남이는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비에 젖었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이다.

별별 사건

01 소음 공해 _ 오정희

02 일용할 양식 _ 양귀자

03 노새 두 마리 _ 최일남

04 낙화 _ 이형기

05 구두 _ 계용묵

별별 사건 어휘로 마무리

01 소음 공해

오정희

#장면별 핵심 태그

#1
가정주부이자 심신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나'

#2
위층에서 나는 [#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나'와 짜증을 내는 식구들

#3
[# 인터폰]을 통해 위층 여자에게 주의해 달라고 항의하는 '나'

#4
위층에 갔다가 [# 휠체어]에 앉은 여자를 보고 슬리퍼를 감추는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38~43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인터폰 2 슬리퍼 3 휠체어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나'는 목요일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사건 '나'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시달리다 결국 위층에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며 위층 여자와 갈등한다.
배경 '나'와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공동 주택(아파트)이다.
소재 '인터폰'으로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위층 여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지는 못한다.

02 ①

'나'는 남편과 두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가정주부이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늘 대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족과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⑤

'나'가 위층 여자에게 슬리퍼를 선물하려고 한 까닭은 자신이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이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다녀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4 ㄴ → ㅁ → ㄷ → ㄹ → ㄱ

'나'는 위층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ㄴ) 처음에는 경비원을 통해 항의하고(ㅁ), 이후 인터폰을 통해 직접 항의하다가(ㄷ) 위층에 직접 찾아가는데 여기서 위층 여자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ㄹ) 이웃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ㄱ).

05 ⑤

ⓐ~ⓓ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는 피아노와 첼로의 멜로디를 가리킨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피아노와 첼로의 멜로디까지 소음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06 휠체어

위층에서 나는 소음의 정체가 휠체어 바퀴를 끄는 소리라는 것이 밝혀지며 갈등이 해소된다. 이처럼 '휠체어'는 극적 반전의 소재가 된다.

07 ④

'나'는 인터폰을 통한 위층 여자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뻔뻔스럽다며 화를 낸다. 그러다 위층에 올라가 다리가 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위층 여자를 보며 당황해한다. 그리고 위층 여자의 그런 처지를 모른 채 짜증을 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08 ③

'나'는 심신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바로 위층에 있는 이웃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작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2 일용할 양식

양귀자

#장면별 핵심 태그

#1
확장 개업한 후
[# 풍년]의 조짐이
보이는 김포 슈퍼

#2
김포 슈퍼에서 팔던 쌀과
[# 연탄]을 팔기
시작한 형제 슈퍼

#3
김 반장이 [# 김포]
슈퍼를 의식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품목을 늘린 이유

#4
어느 슈퍼로 가야 할지 입장이
난처해진 [# 원미동]
여자들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44~49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김 반장 2 쌀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원미동 23통 5반에 사는 동네 주민들이다.
사건 김포 슈퍼가 확장 개업하면서 김 반장네 형제 슈퍼와 똑같은 품목을 팔아서 두 슈퍼가 경쟁하게 된 것이다.
배경 이 글은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도시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재 원래 쌀과 연탄만 팔던 가게는 김포 쌀 상회로, 이곳은 김포 슈퍼가 되었다.

02 ④

김포 슈퍼는 시장이 아니라 원미동 23통 5반에 있는 가게이다. 원미동 여자들은 시장이 먼 탓에 웬만한 찬거리는 동네 가게에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시장에 가지 않아도 김포 슈퍼에서 질 좋은 찬거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김포 슈퍼가 장사가 잘되는 것이다.

03 ②

다리뼈가 부러져 직장을 잃은 사람은 김 반장이 아니라 김 반장의 아버지이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넷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다 보니 김 반장이 억척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다.

04 쌀, 연탄

김포 슈퍼는 원래 '김포 쌀 상회'라는 이름을 걸고 쌀과 연탄만 취급하다가 슈퍼로 확장 개업하면서 생필품, 채소, 과일을 추가로 팔았다. 이에 형제 슈퍼의 김 반장도 팔지 않던 쌀과 연탄을 취급하면서 두 슈퍼가 같은 품목을 팔게 되어 외적 갈등을 겪는다.

05 ⑤

#3에서 형제 슈퍼는 무질서하고 부식의 신선미도 떨어지는 반면, 김포 슈퍼는 새로 확장하면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사람들이 김포 슈퍼를 더 많이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06 ②

'참말로 딱하게 된 것은 원미동 여자들이었다.'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에서 어느 슈퍼로 가야 할지 내적 갈등을 겪는 원미동 여자들의 딱한 처지를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07 ④

김포 슈퍼가 형제 슈퍼에서 팔던 품목들을 취급하면서 사람들이 김포 슈퍼로 발길을 돌리자, 김 반장은 김포 슈퍼에서 팔던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하고 김포 슈퍼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한다.

08 ①

동네에 구멍가게가 들어설까 봐 계약 건수가 있을 때마다 강남 부동산에 드나들던 것은 경호네가 아니라 김 반장이다.

03 노새 두 마리

최일남

#장면별 핵심 태그

#1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다 마차가 미끄러지자 그 틈에 달아난 [# 노새]

#2
[# 대폿집]에서 이제부터는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는 아버지

#3
[# 노새]가 사고를 쳐서 순경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50~55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연탄 2 노새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아버지의 직업은 연탄 배달부이다.
사건 순경이 와서 아버지를 잡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어머니나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가지는 않았다.
배경 온종일 먹지도 못하고 노새를 찾아 돌아다니던 '나'와 아버지는 대폿집에 들어가서 허기를 달랜다.
소재 노새는 구시대적인 교통수단이다. 현대의 교통수단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른다.

02 ③
마차가 오르막길 중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는 않는다. 연탄 마차를 밀었다가는 옷이고 몸이고 모두 연탄이 묻어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03 ②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각에서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이 겪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① '나'와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③ 이 글에서 대화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④ 심리 묘사보다는 행동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⑤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은 노새가 도망간 것이며,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①
ㄱ.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노새'가 힘겹고 고단하게 일하는 아버지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ㄹ. '노새'는 산업화·도시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변화하는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5 ④
이 글의 배경은 1970년대의 도시 변두리이다. 교통수단으로 노새나 말이 모는 마차가 쓰인 것을 보고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06 ⑤
우리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던 노새가 도망가자 아버지는 대폿집에서 술을 마시며 슬픔을 달랜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새처럼 살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07 ⑤
노새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구시대의 교통수단이다.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 자동차는 현대의 교통수단으로, 노새와 대비된다.

08 ④
도시화, 산업화에도 구시대의 수단인 노새를 이용하고, 노새를 잃은 후에는 스스로가 노새가 되겠다는 아버지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소외 계층의 삶을 보여 준다.

04 낙화

이형기

#장면별 핵심 태그

#1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운 [# 뒷모습]

#2
화자의 [# 사랑]이 지듯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

#3
여름의 녹음을 지나 가을의 [# 열매]를 맺기 위한 낙화

#4
꽃잎이 떨어지듯 결별로 성숙하는 화자의 [# 영혼]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56~5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꽃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자신이 이별한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시어 이 시에는 '봄', '가을'과 같이 계절을 직접 가리키는 시어가 쓰였다.
표현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02 ①

이 시는 꽃이 피는 것을 사랑에, 꽃이 지는 것을 이별에, 열매를 맺는 것을 이별 후의 정신적 성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개화(꽃이 핌.) – 사랑', '낙화(꽃이 짐.) – 이별', '열매, 녹음 – 성숙'과 같이 대응된다.

03 ⑤

'영혼의 성숙'은 '꽃'이 진 이후에 '녹음'이 무성해지거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04 ③

사람이 아닌 '꽃잎'이 사람처럼 손길을 흔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의인법이 쓰였다. ③ 역시 사람이 아닌 '갈잎'이 사람처럼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쓰였다.
① '내 마음'을 '호수'에 간접적으로 비유한 은유법이 쓰였다. ② '접동'이라는 시어가 반복되는 반복법이 쓰였다. ④ '고와서'와 '서러워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역설법이 쓰였다. ⑤ '고양이의 털'을 '꽃가루와 같이'라며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 쓰였다.

05 ③

이 시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적 분위기의 시어를 통해 낙화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녹음'은 푸른 잎이 우거진 모습이므로 쓸쓸하거나 안타까운 느낌의 하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06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결별은 헤어지는 것인데 이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므로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시인은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라는 시의 주제를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07 ②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녹음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시는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영혼이 성숙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이 심화된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08 ②

꽃이 만발하는 봄이라는 계절은 인생에서의 청춘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05 구두

계용묵

#장면별 핵심 태그

#1
구두를 고치면서 박은
[# 징]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싫은 '나'

#2
[#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 때문에 앞에서 걸어가던
여자에게 오해를 산 '나'

#3
여자가 자신을
[# 불량배]로 알 것이
서글픈 '나'

#4
세세한 데에도
[#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사람임을 깨달은 '나'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60~63쪽까지 정답이야!

01
인물 ○
사건 ×
소재 ×

인물 '나'와 젊은 여자가 창경궁 담 길을 걷다가 일어난 일이다.
사건 젊은 여자는 뒤에서 걸어오는 '나'의 구두 소리를 듣고 '나'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오해하였다.
소재 '구두 징 소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만든 소재로, 오해와 불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02 ①

'나'의 앞에 가던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길에서 뒤를 따르는 남자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공포스러웠기에 계속 뒤를 돌아보거나 빠르게 걷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②

'나'가 여자를 앞서가려고 더 빨리 걷자, 오히려 여자는 불안감에 자기도 있는 힘껏 걷는다. '나'와 여자의 거리가 불과 2, 3보 정도로 가까워지자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이로써 극으로 치닫던 긴장이 해소된다.

04 ③

'나'는 자신의 구두 징 소리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여자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 ③ 역시 먼지 때문에 눈을 감은 것인데 졸고 있다고 오해를 샀으므로 이 글과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① 본인의 건망증 때문에 자신이 애를 썼던 일이므로 이 글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② 안 좋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오해와는 거리가 멀다. ④ 내가 오해를 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한 경우이다. ⑤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오해와는 거리가 멀다.

05 ④

이 글은 구두에 박은 징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산 일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낸 글이다. 구두를 신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므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로 마무리

메인북 64~66쪽까지 정답이야!

01

(1) ㉠
(2) ㉡
(3) ㉢

㉠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않고 느릿느릿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양, ㉡ '바득바득'은 악착스럽게 애쓰는 모양, ㉢ '하롱하롱'은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뜻한다.

02 ④

'결별'과 '이별'은 반대되는 뜻의 반의어가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가진 유의어이다. '결별'은 다시 만날 약속 없이 이별하는 것이고, '이별'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① '개업'은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끝내는 것이므로 반대말이다. ② '선의'는 착한 마음이고, '악의'는 나쁜 마음이므로 반대말이다. ③ '슬픔'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은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반대말이다. ⑤ '직접적'은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 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간접적'은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므로 반대말이다.

03

(1) 저의
(2) 수선
(3) 조짐

'저의(底意)', '수선(修繕)', '조짐(兆朕)'은 모두 한자어이다. 초성을 보고도 바로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쓰이는 말인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04

(1) 슈퍼
(2) 롤러스케이트

(1) 영어 'supermarket'은 '슈퍼마켓', '슈퍼'가 바른 표기이다. '수퍼마켓, 수퍼마킷' 등은 잘못된 표기이다.
(2) 영어 'roller skate'는 '롤러스케이트'가 바른 표기이다. '로울러스케이트, 롤라스케이트, 롤라스케잇트' 등은 잘못된 표기이다.

05 ①

빈칸의 바로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경호네가 잘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을 '덕담'이라고 한다.
② 악담: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 ③ 험구: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거나 험상궂은 욕을 함. 또는 그 욕. ④ 부탁: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것. ⑤ 칭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

06

(1) 소음
(2) 내막
(3) 매상

(1) '소음'의 '음(音)'은 '소리'라는 뜻이 있다.
(2) '내막'의 '내(內)'는 '안이나 속'이라는 뜻이 있다.
(3) '매상'의 '매(賣)'는 '판매'의 뜻을 가진 한자이다. 이처럼 쉬운 한자만 알고 있어도 어휘의 뜻을 추측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07 ㉡

'입이 닳다'라는 관용어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의 '입이 마르다'도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입이 달다: 입맛이 당기어 음식이 맛있다. ㉢ 입이 벌어지다: 매우 놀라거나 좋아하다.

08 ㉢

㉢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함. ㉡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별별 배경

01 수난이대 _ 하근찬

02 광장 _ 최인훈

03 꺼삐딴 리 _ 전광용

04 성북동 비둘기 _ 김광섭

05 추억에서 _ 박재삼

별별 배경 어휘로 마무리

01 수난이대

하근찬

#장면별 핵심 태그

#1
공습을 피하려고 들어간 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한쪽 [# 팔]을 잃은 만도

#2
전쟁에서 한쪽 [#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충격을 받은 만도

#3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은 사연을 듣고 진수에게 위로를 건네는 [# 만도]

#4
힘을 합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용머리재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68~73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공습 2 외나무다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만도는 아버지, 진수는 만도의 아들이다.
사건 만도는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공사장에서 왼쪽 팔을 잃었고, 진수는 육이오 전쟁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다.
배경 만도는 기차 정거장으로 진수를 마중나갔다.
소재 만도와 진수는 외나무다리를 만나자 처음엔 난처해하였으나 이내 만도가 진수를 업고 건너가고 있다.

02 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서술 방식을 '복선'이라고 한다. ①~④는 만도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지만, ⑤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03 ⑤

다리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진수에게 만도는 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수를 위로한다. 집에서 하는 일은 진수가 하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일은 자기가 하면 된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04 상이군인

'상이군인'은 전투나 업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을 가리킨다. 만도는 처음 상이군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상이군인이 자기 아들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05 ④

만도와 진수는 외나무다리를 만나자, 만도가 진수를 업고 건너가기로 한다.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협력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06 ③

눈앞에 솟은 용머리재를 통해 만도 부자가 넘어야 할 고난이 남아 있음을 암시된다. 하지만 만도 부자는 힘을 합해 시련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⑤

만도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설레고 긴장하며 불안해하기도 한다. 결국 다리가 하나 없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만도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한편 만도는 폼에서 아들을 애타게 찾았으며 아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08 ③

보기에서 만도 부자의 수난은 개인적 차원의 비극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비극이라고 하였다.

보기 톺보기

'태평양 전쟁(1941~1945)'은 제이 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만도처럼 전쟁터에 끌려가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02 광장

최인훈

#장면별 핵심 태그

#1
북한으로 오라는 북한 측의 설득에도 [# 중립국]을 선택한 이명준

#2
남한으로 오라는 [# 남한] 측의 설득에도 중립국을 선택하는 상상을 하며 웃는 이명준

#3
이념의 환상에 지친 이명준이 수명이 다하길 기다리며 쉬기 위해 선택한 [# 중립국]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74~79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중립국 2 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1에서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사건 이명준은 상상 속에서 남한 측 설득자의 설득도 결국 거절한다.
배경 이명준은 남한 측의 포로로, 현재 북한 측 포로 심사장 천막에 있다. 남한 측 천막의 일은 이명준이 상상한 것이다.
소재 이명준은 "중립국."이라는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02 ③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현실에 실망하고,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①
망가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명준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조국애를 강조하며 설득한 것은 남한 측이다.

04 ②
이명준이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한 설득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한편 국가에서 연금을 줄 것이라고 한 것은 남한 측이 아니라 북한 측이다.

05 ④
북한 측과 남한 측의 끈질긴 설득에도 이명준은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상대방의 설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06 ⑤
이명준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는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중립국을 선택한다.

07 ⑤
육이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명준은 포로를 돌려보내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ㄷ). 여기에서 이명준은 남한과 미국의 이념을 선택할지, 북한과 중공의 이념을 선택할지 강요받는다(ㄹ).
ㄱ. 남한은 자유주의 사회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ㄴ. 남한 측 설득자의 말에서 전쟁 이후 남한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과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③
#3을 보면,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에서 제시한 이념이 결국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제시한, 허황된 것이었다고 실망하고 있다. '섬'은 이념의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가리키며, '항구'는 '섬'과 대비되는 곳으로 허황된 이념이 있는 남한이나 북한을 가리킨다.

03 꺼삐딴 리

전광용

#장면별 핵심 태그

#1
스텐코프의
[# 혹]을 떼는
수술에 성공하여 감옥에서
풀려난 과거를 떠올리는
이인국

#2
[#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하며
미국에서의 일을 부탁하는
이인국

#3
[# 미국]에 다녀오면
두고 보자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인국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80~85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시계 2 미국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스텐코프가 이인국을 '독또오루(닥터)'라고 부른 것에서 이인국이 의사임을 알 수 있다.
사건 이인국은 스텐코프의 혹을 없애 준 후에,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고 하였다.
배경 이인국은 현재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
소재 이인국이 스텐코프에게 찾아달라고 한 것은 회중시계이다.

02 ④
이인국은 자신의 영어 문법과 발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브라운 씨에게, 자신은 따로 개인 교수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인국이 브라운 씨에게 교수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②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를, 광복 후 소련이 세력을 얻었을 때에는 러시아어를, 전쟁 때 남한으로 온 이후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이인국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세력을 잡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출세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

04 ⑤
이인국은 뇌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인 '고려청자'를 브라운 씨에게 선물하면서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브라운 씨가 가진 게 많아서 자신의 선물이 소용없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05 ④
#3을 보면, 브라운 씨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된 이인국의 마음속에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고 하였다. 이인국은 미국에 다녀와서 미래에 더 성공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들떠 있다.

06 ③
#2에서 이인국은 고려청자를 받은 브라운 씨가 자신이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고, 이것이 수술을 받은 스텐코프가 자신을 도와준 방식과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미국)에도 통한다고 기고만장해하였다.

07 ⑤
이인국은 의사로서의 사명보다 개인의 명예와 출세가 더 중요한 인물로, 미국에 다녀온 젊은 의사들이 잘난 척하는 모습을 꼴사납게 여기고, 자신이 미국에 다녀오면 두고 보자고 생각한다. 이는 이인국이 미국에 가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있음을 보여 준다.

08 ②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이후에는 소련에, 남한에 온 이후는 미국에 아첨했던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꺼삐딴 리'는 이러한 이인국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04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장면별 핵심 태그

#1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로 보금자리를 잃은
[# 비둘기]

#2
도시화로 밀려나 과거에 대한 [# 향수]를 느끼는 비둘기

#3
[#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린 채 쫓기는 비둘기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86~89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배경 ○

화자 화자는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인간 문명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도시 문명을 부정적으로 본다.
시어 '비둘기'는 원래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자연을 뜻한다.
표현 3연에서는 '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행을 시작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배경 이 시는 성북동이 개발되면서 비둘기들이 살던 성북동 산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바뀌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02 ⑤

이 시의 화자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비둘기의 부정적인 처지를 제시하여 현대 문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⑤

'비둘기'는 원래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지만, 이 시에 나타난 '성북동 비둘기'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자연, 혹은 도시화에 떠밀려 삶의 거처를 잃어버린 도시 빈민들을 상징한다.

04 ⑤

B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무분별하게 개발된 성북동이다. 사람과 비둘기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공간은 A 과거의 성북동(개발 이전의 성북동)이다.

05 ①

이 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둘기의 아픔을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6 ⑤

ⓐ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생긴 공간(인간의 주소)으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는 개발로 인해 지금은 사라진 공간이다.

07 ②

산의 돌을 깨는 행위(㉠),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소리(㉢)는 자연을 해치며 무분별하게 도시를 개발하는 인간 문명의 횡포와 폭력성을 나타낸다.
㉡은 비둘기가 아직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공간을, ㉣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과거를 나타낸다.

08 ④

㉮는 작품을 실제 현실과 관련지어 감상하는 방법으로, ④도 산업화·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년대라는 현실 배경과 시의 내용을 관련지어 감상하고 있다.
①과 ②는 작품 자체의 특징만으로 감상한 내용이고, ③은 독자와 관련지은 감상, ⑤는 작가와 관련지은 감상이다.

05 추억에서

박재삼

#장면별 핵심 태그

#1
[# 진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며 힘겹게 살아가던 어머니

#2
[#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누이

#3
맑은 [# 진주 남강]도 새벽이나 밤에만 보던 고달픈 어머니의 삶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90~9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배경 ○

화자 이 시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시어 '은전'은 부·재산의 상징으로, 가난했던 화자의 가족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표현 옹기전의 옹기들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강인함이 아닌 고달픔과 슬픔을 보여 준다.
배경 1연에 '진주 장터 생어물전'이라고 화자의 어머니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02 ⑤

어머니는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돈을 손에 쥐기 어려운 가난하고 고달픈 삶 때문에 눈물을 글썽였다. 이 시에서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④

어머니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므로 진주 남강이 맑다 해도 새벽이나 밤에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 '진주 남강'은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부각하는 존재이다.

04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지만,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다.

05 ②

② '울 엄매'는 '우리 엄마'라는 뜻의 사투리로, '(울던) 엄마'가 연상되어 슬픈 느낌을 주는 시구이다.
①, ③, ④, ⑤는 '한이던가', '떨던가', '어떠했을꼬',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고달픈 삶과 이를 이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6 ④

ⓐ '별밭'은 어린 시절 오누이가 소망하던 곳으로, 춥고 좁았던 ⓑ '골방'과 반대되는 공간이다.

07 은전

2연에서 생선 눈깔의 둥근 모양은 은전을 떠올리게 하는데 은전은 '손 안 닿는', 즉 가난한 어머니의 처지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벗어나기 힘든 가난 때문에 한스러웠을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08 ④

'달빛'은 화자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옹기전의 옹기를 비추는 존재이다. 이 시는 이 달빛 받은 옹기의 반짝임에 늦은 밤까지 고달프게 일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글썽이는 눈물을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휘로 마무리

메인북 94~96쪽까지 정답이야!

01
(1) 틈서리
(2) 조력
(3) 자긍
(4) 손실

(1) '틈서리'는 '틈이 난 부분의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여기서의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를 가리킨다.
(2) '조력'은 '힘을 써 도와줌. 또는 그 힘.'을 뜻하는데, '도울 조(助)'와 '힘 력(力)'자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3) '자긍'은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짐. 또는 그 긍지.'를 뜻하는 말로,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을 뜻한다.
(4) '손실'은 '잃어버리거나 모자람이 생겨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를 가리키는 말로, '덜 손(損)'과 '잃을 실(失)' 자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02
(1) ㉠
(2) ㉡
(3) ㉢

(1) '재차'는 '거듭하여 다시.'라는 말이고, '다시'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라는 뜻이다.
(2) '온기'와 '난기'는 둘 다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이다.
(3) '경위'는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경로.'라는 뜻의 '과정'과 바꾸어 쓸 수 있다.

03 ②

'넌지시'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③, ④, ⑤ 모두 '드러나지 않게.',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넌지시'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공연히'는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라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04
(1) 어깻죽지
(2) 낳지
(3) 윗몸

(1) '어깻죽지'는 '어깨에 팔이 붙은 부분.'을 가리킨다. '어깨'와 '죽지(팔과 어깨가 이어진 부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어깨쭉찌/어깬쭉찌]로 발음한다.
(2)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이다. 한편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3) '윗몸'은 '허리 윗부분의 몸.'이다.

05
(1) ㉡
(2) ㉠

(1) ㉠ '왁자지껄'은 '여럿이 정신이 어지럽도록 시끄럽게 떠들고 지껄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시끌시끌'은 '몹시 시끄러운 모양.'을 뜻한다.
(2) ㉡ '달랑달랑'은 '작은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가 자꾸 흔들릴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펴 가면서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뜻한다.

06 ㉡

'한낮'은 '낮의 한가운데. 곧, 낮 열두 시를 전후한 때.'를 이르는 말이다. 한낮은 태양이 높이 떠 있어 밝은 때이므로 '한낮 어스름'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07 ㉠

만도는 아들 진수가 아직 젊은데도 한쪽 다리를 잃은 신세가 된 것을, 진수 역시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할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의 ㉠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가장 적절하다.
㉡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됨.
㉢ 표리부동(表裏不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08 ㉠

설명으로 보아 화자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으며 화자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힘겹게 일을 해야 했으므로 몸이 고되고 피로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입에서 젖내가 난다'는 '나이가 어려 하는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어머니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 코에서 단내가 난다: 몹시 고되게 일하여 힘이 들고 몸이 피로하다는 말. ㉢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별별

소재

01 흐르는 북 _ 최일남

0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흥길

03 성탄제 _ 김종길

04 풀 _ 김수영

05 결혼 _ 이강백

별별 소재 어휘로 마무리

01 흐르는 북

최일남

#장면별 핵심 태그

#1
민 노인이 성규 학교에 가서
[# 북]을 친 일을
따지는 며느리 송 여사

#2
[# 할아버지]를 동원한
일로 성규를 꾸짖는
아버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성규

#3
[#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성규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98~103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북 2 민대찬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송 여사는, 민 노인의 아들인 민대찬의 아내이다.
사건 민 노인은 손자 민성규의 학교 축제에서 가면극에 참여하여 북을 쳤다.
배경 민대찬과 민성규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간은 민대찬의 집이다.
소재 민성규는 '북'이 할아버지인 민 노인의 삶 그 자체라고 여긴다.

02 ① 민 노인의 며느리 송 여사는 민 노인이 성규네 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일이 나이 먹은 사람이 할 일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민 노인의 아들 민대찬 역시 아버지에게 직접 뭐라고 하는 대신, 아들인 성규를 꾸짖고 있다.

03 ③ 민 노인의 아들 민대찬은 예술을 추구하느라 가족을 버렸던 민 노인을 원망하고 있다. 또한 아들인 성규에게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라고 비웃으며 아버지의 예술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04 ⑤ 민 노인이 치는 북이 손자인 민성규에게로 이어지는(흐르는) 모습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알 수 있다.

05 ③ 민대찬은 민 노인이 북을 친 일이 못마땅하지만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 방에서 나온 민 노인을 외면하고 성규에게만 화를 내고 있다.

06 ⑤ 이 글에서 민성규는 할아버지의 예술 정신을 이해하는 한편,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던 아버지의 처지 역시 이해하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화해시켜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07 ③ #2에서 민성규가 자신을 꾸짖는 부모에게 한 말이다. 민성규는 자신이 민 노인에게 부탁하여 두 사람이 함께 봉산 탈춤 공연을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08 ⑤ 민대찬은 민 노인과 갈등하는 자신과 달리 민 노인을 이해하려는 아들 성규를 못마땅해한다. 게다가 성규가 꼬박꼬박 말대답하자 참지 못하고 '이놈의 자식'이라고 비속어를 쓰며 뺨까지 때린다.

0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장면별 핵심 태그

#1
집에 들어온
[# 강도]의 어설픈
행동에 강도가 권 씨임을
눈치채는 '나'

#2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간 권 씨와
[# 대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는 '나'

#3
아홉 켤레의
[#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된 권 씨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04~109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대학 2 구두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이 글의 주인공은 권 씨이고, '나'는 권 씨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이다.
사건 '나'의 집에 든 강도의 정체는 권 씨이다. 권 씨는 '나'에게 정체를 들킨 것을 알고는 빈손으로 집을 나간다.
배경 권 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살고 있다.
소재 권 씨는 '나'가 자신의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 준 것을 모르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벌이고 있다.

02 ⑤

권 씨가 행방불명된 상황과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이라는 구절을 보면, '나'가 권 씨의 문간방에 간 것은 권 씨 행방과 관련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수술 보증금과는 관련이 없다.

03 대문은 저쪽입니다.

'나'는 권 씨가 다음날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신이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가 권 씨를 배려하여 대문의 위치를 알려 준 일은 오히려 권 씨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힌다.

04 ③

'나'는 강도의 복면 위로 드러난 눈과 강도의 행동을 보고 그가 권 씨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다. 오히려 강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는 강도가 강도짓을 마저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05 ③

'나'는 강도가 권 씨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서도 권 씨를 배려하여 끝까지 강도로 대우한다. 하지만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한다.

06 ⑤

권 씨는 복면을 쓰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자신의 정체를 '나'가 눈치채고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에서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07 ③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권 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먼지를 덮어쓴 구두는 권 씨가 닦아 두지 않은 것일 뿐, 권 씨의 상처 입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08 ③

'나' 역시 셋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다가 겨우 자기 집을 마련한 소시민이다. '나'는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 주기도 하고, 권 씨가 강도짓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권 씨를 돕고자 하는 인물이다.

03 성탄제

김종길

#장면별 핵심 태그

#1
어린 시절 열병으로 앓아누운 '나'를 위해 [#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아버지

#2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현재의 '나'가 느끼는 [# 아버지]의 사랑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10~113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배경 ○

화자 7연의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시구를 통해 화자는 어른이 된 '나'임을 알 수 있다.
시어 8연에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는 것에서 '눈'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 후각적 심상은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말한다. 이 시에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시각적 심상,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배경 화자가 떠올리는 어린 시절에도 눈이 내렸고, 지금도 '성탄제 가까운 도시'라는 것에서 겨울임을 알 수 있다.

02 ④

시적 화자는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위해 눈을 헤치며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①, ②, ③, 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문제에서는 이 시에 나타난 경험만을 묻고 있으므로 답으로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3 ②

2연은 어린 시절 열병으로 앓아 누운 화자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지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 줄 뿐, 늙은 할머니와 어린 화자를 시각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04 ④

[A]는 1~6연으로 화자가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고, [B]는 7~10연으로 어른이 된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부분이다. 화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05 ⑤

ⓔ는 ⓐ, ⓑ와 같은 의미이다. '산수유 열매'는 해열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앓고 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눈이 내리는 산속을 헤치며 약을 구해 온 것이다.

06 ③

'서느런 옷자락'은 자식을 위해 차가운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07 ③

'서러운 서른 살'은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연달아 배치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08 ⑤

'성탄제'라는 배경은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과 성스러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화자는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자신을 살린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성탄제와 연관 지음으로써 그 사랑을 헌신적이고 숭고한 이미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04 풀

김수영

#장면별 핵심 태그

#1
비를 몰아오는
[# 동풍]에
눕고 우는 풀

#2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나는 풀

#3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 [# 풀]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14~117쪽까지 정답이야!

01
화자 ×
시어 ○
표현 ○

화자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시어 '풀'은 민중을,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표현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와 함께 운율을 줄 수 있다.

02 ④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야옹야옹', '살금살금' 같은 말들을 가리킨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대상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시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03 ②

이 시가 쓰인 시기는 1960년대로 독재 권력이 민중을 억압하던 시대이다. 따라서 '풀'은 억압받는 민중을,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04 ⑤

①~④는 1연에 제시된 '풀'의 모습으로, '풀'의 수동성과 나약함을 보여 준다. ⑤는 2연에 제시된 '풀'의 모습으로, 풀의 능동성과 강인함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05 ④

A와 B가 반복되는 것에서 '풀'의 역동성, 즉 힘차고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풀'이 시대 현실에 끊임없이 저항해서이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06 ②

날이 흐리다는 것은 아직 풀을 둘러싼 시대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을 나타난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한 '풀'의 속성으로 보아, 결국 '풀'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7 ④

'풀'이 점점 '발목까지' 눕고 '발밑까지' 누웠다는 것은 '풀'에게 가해지는 시련 때문에 '풀'의 고통이 극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08 ⑤

'풀뿌리가 눕는다'는 '풀'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 시의 흐름과 보기의 설명으로 볼 때, 인간은 내면의 갈등이나 시련을 만나 방황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극복해 내는 존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보기 OO 묻보기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5 결혼

이강백

#장면별 핵심 태그

#1
'하인'이 넥타이를 빼앗아 가자 관객에게 가서 [# 넥타이]를 빌리는 '남자'

#2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여자'

#3
'여자'를 '[# 덤]'이라고 부르며 '여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설득하는 '남자'

#4
'여자'는 결국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남자'와 '여자'는 [# 결혼]을 하러 감

문제 정답 및 해설

메인북 118~123쪽까지 정답이야!

작품 줄거리 1 넥타이 2 청혼

01
인물 ×
사건 ○
배경 ×
소재 ×

인물 '남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사기꾼이다.
사건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고 떠나려고 하지만, 결국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인다.
배경 '여자'는 맞선 장소를 '남자'의 집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곳도 '남자'가 빌린 것이다.
소재 '하인'이 '남자'가 하고 있던 '넥타이'를 빼앗아 가자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다.

02 ③
'남자'는 주인에게서 온 경고문을 '여자'에게 보여 주며, 자신이 빈털터리이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03 ⑤
'남자'는 주인에게서 집에서 나가라는 경고문을 받는다. '하인'은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신고 와서 남자를 차 낼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구둣발로 남자를 걷어찬다.

04 ⑤
㉠은 배우가 아닌 극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이다. 이 글에서 관객은 '남자'에게 넥타이를 빌려주기도 하고 빌린 시간을 재는 등 극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05 ⑤
작가는 자신이 빌렸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가장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된 '남자'와, 부자와 결혼하려 했다가 빈털터리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곧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06 ⑤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시간이 되면 회수해 가는 기계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무런 대사가 없다. '남자'가 시간이 되어도 집에서 나가지 않자 '남자'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7 ④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청혼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떠나려는 자신을 붙잡는 '남자'의 말에 설득당하고 결국 '남자'가 '하인'에게 걷어차이자 돌아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08 관객(들)
이 글에서는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기도 하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말을 걸기도 한다. 이처럼 이 글은 관객을 극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객을 극에 끌어들이며 글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어휘로 마무리

메인북 124~126쪽까지 정답이야!

01

(1) ㉠
(2) ㉡
(3) ㉢

(1) '절규하다'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다.'라는 뜻이다.
(2) '졸렬하다'는 '옹졸하고(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 천하여 서투르다.'라는 뜻이다. '좀스럽다'는 '도량이 좁고 옹졸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다.
(3) '고깝다'는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다.'라는 뜻이다.

02 ③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을 가리키는 말로, '비웃음', '찬웃음', '코웃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① '눈웃음'은 소리 없이 눈으로만 가만히 웃는 웃음이다. ② '헛웃음'은 마음에 없이 지어서 웃거나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는 웃음이다. ④ '함박웃음'은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다. ⑤ '너털웃음'은 크게 소리를 내어 시원하고 당당하게 웃는 웃음이다.

03

(1) 묵묵부답
(2) 허둥지둥

(1)은 「결혼」에서 '하인'이 '남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2)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나'의 집에 강도로 들어온 권 씨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쓰인 말이다.

04 ㉢

㉢ '불현듯'은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을 가리킨다.
㉠ '섣불리'는 '솜씨가 설고 어설프게.'라는 뜻이고, ㉡ '함부로'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

'짝'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의 각각을 세는 단위를 가리키므로 ㉠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에는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인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종이나 유리처럼 얇고 넓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인 '장'이 들어가야 한다.

06

(1) 띄지
(2) 빈털터리
(3) 몰아붙였다

(1) '띄다'는 '눈에 보이다.'는 뜻으로 '뜨이다'의 준말이다. '띠다'는 빛깔, 색채, 감정, 기운 등을 나타낼 때 쓴다.
(2) '빈털터리'는 '재산을 다 없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가 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3) '몰아붙이다'는 '남을 어떤 상황이나 방향으로 몰려가게 하다.'는 뜻이다.

07 ㉡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다'는 몹시 화가 날 때 쓴다. 여기서 '부아'는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뜻한다. '속이 끓다', '눈에 불이 나다'는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용어이다. ㉡ '간이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몹시 놀랄 때 사용하는 관용어이다.

08 ㉡

이 글에서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것을 잊고 아이가 깰까 봐 들고 온 칼도 내려놓고 아이를 토닥거리고 있고, 집주인인 '나'는 강도가 떨어뜨린 칼을 집어 들고 있다. 따라서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의 '주객전도'가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하다.
㉠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으로, 자신이 행한 대로 결과의 좋고 나쁨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 '대기만성'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라도 성공한다는 말이다.